

규제에 발목잡힌 초대형IB 자본달리는 中企특화 증권

초대형IB 新사업인가 불허 잇따라 KB증권 발행어음 인가안 시선집중 중기특화, 2기도 별다른 성과 없어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의 역할이 유명 무실해졌다. 초대형 IB는 각종 규제에 막혀 신(新)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중기특화 증권사는 여전히 대형증권사의 자본력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을 상정한다. 인가안이 통과할 경우 KB증권은 내달 초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받고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초대형IB의 탄생이다.

◆초대형IB 4년차, 아직도 2곳만... 지난 2016년 8월 금융위가 '초대형 IB

육성 방안'을 발표한 이후 초대형 IB 최소 기준인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을 인가받은 증권사는 2곳에 불과하다.

KB증권은 지난 2016년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1개월간 랩어카운트 영업이 정지됐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발행어음 인가를 자진 철회했고, 삼성증권은 지난해 발생한 '배당사고' 여파로 2021년까지는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는 상태다. 미래에셋대우 또한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그룹 내 '내부거래' 문제로 관련 사업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도 순탄치 않다. 발행어음 1호 증권사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SPC설립을 통해 최대원 회장과 TRS(총수익수입)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초대형 IB가 각종 규제에 새로운 사업 진출이 번번히 가로막히면서 증권사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대형 IB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곳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자본력에 밀리는 '중기특화'

지난 2016년 4월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중·벤처기업 금융 업무에 특화된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도 자금 조달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벤처기업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 펀드 도입, 신규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중기특화 1기로 선정된 6개 중

운용회사	2018	2017	2016	2015
한국투자증권	11.72	11.36	6.62	7.9
삼성증권	7.14	6.29	4.48	7.43
미래에셋대우	5.55	6.06	-	-
NH투자증권	6.59	7.52	4.63	4.59
KB증권	5.35	6.41	-	-

/자료=각사 공시

권사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채 마무리되자 지난해 5월 유안타·유진·코리아에셋·키움·IBK·SK 등 6개 증권사를 2기 중기특화증권사로 선정하며 해택을 강화했다.

주요 해택은 중·벤처기업 대출 시대 대출액의 최대 32%까지만 순자본에서 차감하는 제도 등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증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대출채권잔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했지만 중기특화증권사는 예외로 해준 것이다.

하지만 2기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대형증권사의 '진입장벽'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유진·유안타·SK증권 등의 기업공개(IPO) 주관 건수는 각 2건 등에 그쳤다. IBK투자증권(4건), 키움증권(9건)이 다소 약진했다. 하지만 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각 14건), 미래에셋대우(13건), NH투자증권(11건) 등 대형사와 비교하

면 우월한 수치지다. 더욱이 대형증권사들이 중소기업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중기특화 증권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KB증권은 SME(중견중소기업) 금융 본부를 운영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캐피탈 등 계열사와 함께 중·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역시 약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해 벤처기업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의 영업망을 이길 수가 없다"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통해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메리트(장점)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해선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하나금융그룹,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 1호 개원

거제시 '아주하나어린이집' 완공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운영

하나금융그룹은 18일 경남 거제시에 함께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 완공 및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해 변광용 거제시장, 김한표 거제시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거제시 아주동에 건립된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964㎡(290평) 규모로, 총 130여명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공공보육 시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거제시의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은 하나금융그룹이 건립 추진 중인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건물 구조와 내부 시설 구비, 반 운영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왼쪽 세번째), 함영주 KEB하나은행장(두번째), 변광용 거제시장(네번째)이 18일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국공립 아주하나어린이집' 완공 및 개원식을 갖고,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까지 장애아 비장애아 아동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건립, 운영됨으로써 국내 부족한 장애 영유아 보육 시설의 이용 기회 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편견과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박승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거제시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노력하여 해결하려는 의미가 있다"며 "거제시 아주하나어린이집의 모범적인 사례가 널리 알려져서 더

/김문호 기자 kmh@

원·달러 상승에 매도 확산 거주자 외화예금 감소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2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19년 2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736억8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 등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지난해 11월 750억 5000만달러로 반등에 성공했으나 12월 744억6000만달러로 내렸다. 이후 1월 말 745억2000만달러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 달 다시 감소한 것이다.

2월 달러화예금(625억달러)은 기업 수입대금 지급,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현물환 매도 등으로 전월 대비 11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말 달러당 1112.7원에서 2월 말 1124.7원으로 올랐다.

엔화예금(45억5000만달러)은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현물환 매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4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원·100엔 환율은 2월 말 1015.4원으로 1월 말(1022.8원)보다 떨어졌다.

유로화예금(37억1000만달러)은 전월 대비 2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면 위안화 예금(11억9000만달러)은 2억9000만달러 감소했고 홍콩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화 등 기타통화 예금은 17억3000만달러로 6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 외화예금을 보면 국내은행(630억5000만달러)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106억3000만달러)이 각각 7억7000만달러, 7000만달러 감소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592억1000만달러)이 5억1000만달러 감소했고 개인예금(144억7000만달러)은 3억3000만달러 줄었다.

/김희주 기자 hj9@

외국인, 국내주식 3개월째 순매수세

지난달 1조6480억 매수... 우위 지속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수세가 석달째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648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1조원, 6000억원 규모다.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매수 우위를 지속 중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의 매수 규모가 9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중동과 아시아가 각각 2000억원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은 1000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버진아일랜드가 5000억원 규모로 순매수 했고, 룩셈부르크와 영국이 각각 4000억원씩 사들였다. 호주와 덴마크는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순매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는 563조7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2.1%다.

미국의 보유규모가 240조9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2.7%를 차지했고 ▲유럽 164조4000억원(29.2%) ▲아시아 67조4000억원(12.0%) ▲중동 19조7000억원(3.5%) 순이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조8600억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 십억원, 결계기준)

구분	'18년			'19년			보유잔고
	1'8	상반기	하반기	1월	2월		
주식	△6,678	△3,900	△2,778	5,382	3,734	1,648	563,691
채권	15,625	12,021	3,604	△3,931	△3,739	△192	109,975
합계	8,947	8,121	826	1,451	△5	1,456	673,666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원을 순매수했지만 2조5200억원 만기상환으로 인해 총 192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난 1월 순회수로 전환한 이후 순회수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규모는 총 110조원으로 상장잔액의 6.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1000억원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는 6000억원 순회수했다. 보유규모는 ▲아시아 47조2000억원(전체의 42.9%) ▲유럽 37조2000억원(33.9%) ▲미주 9조3000억원(8.4%) 등의 순이다.

종류별로는 국채에는 1조3000억원을 순투자했지만 통안채에서는 1조4000억원을 순회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